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주민설명회

진안군·금강유역환경청, 사업 지침 개정 앞두고 주민 이해 돕기 위해 추진

진안군과 금강유역환경청은 9일 진안 문화의 집에서 수변구역 마을대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주민설명회는 매년 연초에 개최됐으나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다가 최근 금강수계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과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침의 대대적인 개정을 앞두고 수변구역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현장 설명회를 추진하게 됐다.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은 ▲공용물품 관리강화차원으로 공용물품구입 사전 심사 체크리스트 마련해 전자태그(RFID)기반 공용물품 관리시스템

도입하고, 내용연수 도래물품은 마을 회로 관리권한 이관 ▲주민지원사업 취득 부동산·물품의 처분절차 및 사후관리기준 현실화로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 ▲중장기 광역사업 의무추진 일반지원사업비 비율이 금강수계 전체 일반지원사업비의 10%미만에서 5%미만 관리청으로 축소되면서 진안군은 2023년부터 간접지원사업비의 30%이상을 소모성·일회성 사업 대신 중장기사업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직접지원비 지원기준 및 지급절차 등을 명확화 하고 직접지원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위해 당초 일반지원사업비의 40%이내 지원할 수 있던 직접지원사업비를 일반지원사업비의 50%이내 지원 할 수 있도록 개

정 ▲소모성 영농자재(유기질비료, 퇴비 등)는 읍·면별 간접지원사업비의 50%이내 구입할 수 있게 제한비율이 신설 됐다.

한편 진안군은 2021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일반지원) 12억원으로 8개 읍·면 64개 수변구역 마을에 간접 및 직접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수변구역 마을이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침 변경사항 숙지하여 더욱 뜻깊고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앞장

무주군, 치매극복봉사단 운영... 치매 어르신 가정 방문 봉사

무주군 치매안심센터가 치매친화적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치매극복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치매극복봉사단을 운영하면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해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과 치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치매극복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 8명의 단원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치매극복 봉사단은 지난달 29일 '꿀비'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치매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귀중한 시간을 보냈다.

이날 치매어르신 가정 봉사활동은 치매안심센터 주무관과 치매극복봉사단원들이 3인 1조로 홀로 계신 치매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말벗되기, 집안 청소 및 치매예방을 위한 퍼즐 맞추기, 색칠놀이 등을 함께 하며 어

르신께 즐거움을 전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봉사단은 하반기에도 두 차례 정도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무주군치매안심센터는 치매극복봉사단 양성을 통해 치매파트너 플러스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사회 내 건전한 돌봄 문화 확산과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무주군치매안심센터는 치매극복봉사단원을 연중 모집하고 있으며, 봉사에 참여한 단원들의 경우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등록해 봉사시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박인자 치매안심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르신들이 느끼는 고립감과 외로움은 어느 때보다 크다"며 "앞으로도 관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도움을 드리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성인문해교육 학습자 위한 민주시민교육

진안군은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해 성인문해교육 학습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주시민(선거)교육을 7일, 9일 2번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 선거교육은 전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주최로 전북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으로 7일(마령면), 9일(진안읍) 등 2개 읍면을 선정해 실시했다.

이는 '2022년 대선과 전국동시 지방선거 일정'이 발표됨에 따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전문강사가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효과적인 선거교육 방법과 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안내하고 투표절차 등에 대한 이론과 함께 모의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노인실명예방·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 대상

무주군이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노인의료복지 사업이 어르신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다. 어르신들의 고질적 질환으로 분류된 실명과 무릎 수술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과 노년 편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무주군은 만 60세 이상 관내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들을 대상으로 노인실명예방수술지원과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연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후에 수술비 지원이 결정된 어르신들은 안질환과 관련한 수술비와 사전 검사이(혈액, 소변, 심전도, 눈초음파)를 1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

다. 후발성백내장·망막질환·녹내장, 눈물샘 안과적 수술(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포함) 등이다.

보건복지부, 노인의료나눔재단이 함께 하는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도 편안한 노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년 어르신 지원정책이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 퇴행성관절염 환자(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 인정 기준에 준하는 자)중 의료급여 1·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제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고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고통을 경감,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한쪽 무릎 기준으로 검사이와 진료비, 수술비 등 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 원 한도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무주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063-320-8411)에서 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 이내에 수술을 해야 한다.

다만, 신청 전에 받은 수술 또는 신청 후 지원 대상자로 통보 받기 전에 받은 수술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는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임미경 팀장은 "고령화가 되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이 과제"라며 "어르신들이 신체적 불편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노인의료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은 전북도가 주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진안군,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

'온라인 원스톱 민원처리 체계 구축 추진' 수상... 사업비 5억원 확보

진안군은 전북도가 주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전북도에서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개최했으며 도에서 12건, 14개 시·군에서 30건의 우수사례가 제출돼 각축을 벌였다. 1차 서면심사, 2차 도민온라인심사 및 전문가심사에 이어 지난 8월 최종 발표심사가 열렸으며, 그 결과 진안군이 시·군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사례는 김명기 민원봉사과장(주제안자)과 권윤희 주무관(부제안자)이 공동 기획해 추진 중인 '온라인 원스톱 민원처리 체계 구축 추진'이다.

이는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마을과 행정기관을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전용기기를 통해 ▲음성과 문자로 각종 생활정보·복지서비스·관광정보 제공, ▲원격으로 민원서류 발급과 민원신청 업무를 처리, ▲화상을 통해 공무원과 민원인 직접 상담, ▲각종 정책에 대한 주민여론 수렴과 생활불편 사항을 신고·접수하는 시스템이다.

진안군은 올해 시스템 시범 구축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응모해 국비 4억8,000만원을 확보했고, 전북대학교의 지역 상생 협력 사업을 통해 2,000만원을 지원받기로 하는 등 총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12월까지 AI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기기를 제작해 진안군과 2개소에 설치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운영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청소년 건전한 환경 조성 위해 유해환경 점검

무주군은 청소년의 달을 맞아 오는 11일까지 3회에 걸쳐 유해환경 점검을 하는 등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노래연습장, PC방 등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점검과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참여한 가운데, 군청 관련 부서와 무주경찰서, 무주교육지원청, 전라북도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함께했다. 청소년 음주·흡연 등 일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이다.

점검 지역은 무주군 6개 읍면의 학교주변, 번화가(구천동) 및 청소년통행금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단속 이후 재발한 음식점 등도 포함됐다.

점검은 '행정조사기본법',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술·담배 등 판매행위 등을 살폈다. 또한 청소년 이성혼숙 등 묵인·방조 행위,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술·담배·기타약물·물건 등에 부착하는 유해표시의 적정성 등도 점검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 '금연 ON 흡연 OFF' 비대면 운영

장수군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금연 시도 등록자 37명 대상으로 비대면 금연 동기 부여 프로그램 '금연 ON 흡연 OFF'를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면상담이 어려워지면서 금연 인식개선 및 금연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금연 홍보 꾸러미 제공, 구강·영양·대사증후군 예방 등 건강생활실천 홍보 팸플릿, 교육자료를 전달했다.



센터는 흡연자가 코로나19 감염에 더 취약하며 감염 가능성이 높고 감염

이 됐을 경우 중증도와 사망 위험이 높다는 세계보건기구와 복지부의 발표에 따라 군민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금연 사업을 지속실시해 흡연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진숙 보건사업과장은 "흡연이 코로나19의 고위험군 요인으로 분류되고 금연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진 만큼, 비대면 금연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동시에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